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성심 성가대

주 제:	“마음의 성전 ”	“사순 제 3주일”	2009년 3월 15일
복음 묵상:	[요한 2,13-25]	[출애 20,1-17]	[1 고린 1,22-25]

예수시대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느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돈이나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은 속되고 흠 있는 것으로 여겨, 성전예물로 사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성전상인들과 결탁한 사제들은 깨끗한 돈으로 환전하고, 흠 없는 짐승들을 독점 판매하여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돈은 때때로 거룩한 천사의 얼굴을 지니지만 욕심으로 눈먼 인간에게는 무서운 악마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적 존재입니다. 돈의 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곧 행복을 가져다주리라 믿기에 돈은 언제나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돈은 하느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수단이요, 방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목숨을 걸고, 섬기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하느님 대신 돈의 힘을 믿고 돈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유혹은 예외가 아닙니다. ‘하느님보다 돈을 섬기는 경지’에 가면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난한 자들의 땀을 남김없이 거두어가는 탐욕을 부리거나, 철저한 이해타산으로 모든 가치를 돈으로 가늠하거나, 받는데만 익숙하고 주는 것에는 지극히 인색한 태도는 모두가 다 돈을 섬기는 행위가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좋은데 쓰자’라는 신흥종교도 있지만 미래의 선교를 위해, 지금 죽어가는 이들의 삶을 외면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러한 교회가 꿈꾸는 미래는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기로 작정하여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경제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도와 자선과 극기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삶과 우리 개인의 삶을 정화하며, 열심히 일하고, 정의와 사랑으로 연대함으로써 돈은 필요한 만큼 은혜로이 채워질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시련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바람’으로 사람의 마음이 뜨겁게 움직이는 청정한 마음자리가 곧 우리의 성전이 될 수만 있다면 이 꿈은 놀라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마음에 탐욕의 담장을 헐어내어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가난한 이웃이 언제나 함께 ‘기도하고, 될 수 있는 평화로운 영혼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인천 조 광호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이 상규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3/11-3/17 까지 Iowa 로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출장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한 여행과 하시는 일이 잘 마무리 후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과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이 건강상태가 완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가대 가족들은 두 자매님들이 빨리 건강이 회복되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성가 연습방 소개

아래에 가시면 언제든지 파트별로 연습을 할 수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5240>



유대인들의 과월절이 가까와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 가셨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환금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시고 환금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며 그 상을 둘러 엮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장수들에게 "이것들을 거두어 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꾸짖으셨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머리에는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하신 성서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 때에 유대인들이 나서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럴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 주겠소?" 하고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예수께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십 육 년이나 걸렸는데, 그래 당신은 그것을 사흘이면 다시 세우겠단 말이오?" 하고 또 대들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비로소 성서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과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는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것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실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은 들어 보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였다. .

1분 명상

♡사순절에 느끼는 회개의 참 뜻♡



내적 참회는 삶 전체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며,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며, 우리가 지은악행을 혐오하고
 악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지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적회개는
 하느님 자비에 대한 희망과 하느님은총의 도움을 믿고
 생활을 바꾸겠다는 의향과 결심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회개에는 교부들이
 " 영혼의 고뇌 ", "마음의 회한 " 이라고 했던
 구원에 유익한 고통과 슬픔이 따릅니다.
 회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20).